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7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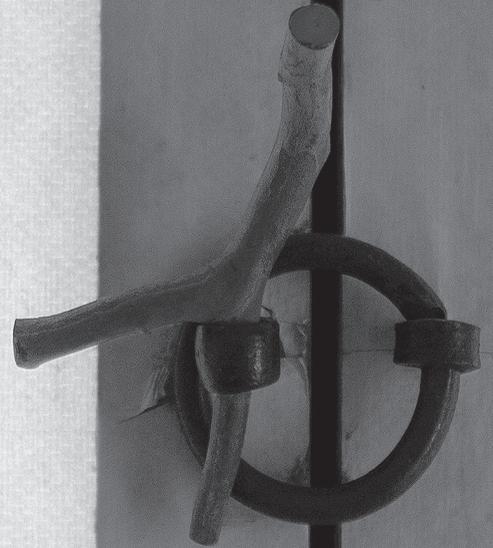
1. 시절 인연
나를 보고 있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부처님의 화장품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보현행원품 I
4. 법정 스님 잔소리
지금 하는 일이 전부다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I
6. 불일암 구석구석
불일암 밥상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바다로 가는 길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알림 《맑고 향기롭게》 6월호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I"의 VI은 V를 잘못 쓴 것입니다. 고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씹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음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7월 1일 발행, 통권 316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음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나를 보고 있다

불교 경전은 원래 눈으로 읽는 문자로 쓰이지 않고 부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암송해 오다가 후기에 문자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소리를 내어 외기 편하도록 운문, 곧 시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후렴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처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단지 눈 뜬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그에 대한 호칭도 이 경전에서는 '눈 뜬 사람' '수행자' '널리 보시는 분' '고타마'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시절의 수행자들은 나무 그늘이나 바위에 앉아, 때로는 외진 동굴 속에서 명상하고 간소한 생활을 했으므로 요즘처럼 조직화된 규모의 사원도 없었다. 지닌 것이라고는 남들이 버린 천 조각을 주워 그것을 꿰매어 걸친 누더기 옷에, 바리때 하나를 들고 구름처럼 물처럼 여기저기 걸식 행각을 하면서 자신을 일깨우고 이웃을 깨우쳐 주었다.

그들의 삶이 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또한 단순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었다. 《숫타니 파타》를 보면 2500년 전 불교가 처음 싹트기 시작할 때 주변의 상황들, 특히 다른 수행자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부처가 말한 그 가르침의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내 오두막의 한쪽 벽에는 이 책 안에 들어 있는 다음 같은 글귀가 붙어 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글귀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내 속이 한층 깊어지는 것 같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낼 수 없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1999년 7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법정

법정 스님이 《숫타니파타》를 재출간하면서 책 머리에 썼던 글을 오늘에 어울리게 정리해 실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누군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인지, 스님의 초심인지 아니면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염원인지...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4월에는 미소를, 6월에는 화장법을 주셨습니다. 7월엔 뭘 주실까? 화장품입니다. 미소짓는 얼굴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화장품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절로 드러나는 부처님 화장품, 흘리지 말고 잘 챙겨 가세요.

부처님의 화장품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다.

하나,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하지 않고 안으로 들여다본다.

둘, 채우려 하지 않고 비울 줄 안다.

요즘처럼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서는 단순한 삶이 필요하다. 단순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가구나 실내장식, 옷 할 것 없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들고 적게 말하고 적게 먹어야’ 사람이 덜 시든다. ‘얼마나 아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종교는 이론에 있지 않고 행(行)에 있다.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자주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속물도, 부속품도 아니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보람 있는 인생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에 있지 않다. 의미를 충족시키는 삶이야말로 보람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원(願)을 세우라. 원은 생의 지표이고 희망이다. 원이 없으면 삶이 시들해진다. 원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 욕심은 이기심을 일으키고 원은 이타심을 일으킨다.

이타심을 일으키는 영혼은 아름답다. 영혼이 아름다운데 예쁘지 않은 인간은 없다.

첫눈에 알아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보면 볼수록 그가 예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마련이다. 아름다운 영혼은 안에서 차고 넘쳐 밖으로 나타난다. 더 좋은 것은 영혼의 아름다움은 세월에 삭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혼이 아름답지 못한 걸치레 아름다움은 결코 무상의 법칙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빛을 낸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뻐지는 화장법은 영혼의 화장법이다. 영혼의 화장법은 어렵지 않다.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째 욕심 안 낸다.

둘째 화안 낸다.

셋째 바보가 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행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貪)진(瞋)치(癡)의 3가지 독(毒)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들이 3가지 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영혼의 화장품이다.

하나, 할 일만 하고 하지 않기로 한 일은 하지 않는다.

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자주 갖는다.

셋, 남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본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戒)정(定)혜(慧) 3가지 가르침이다.

계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그릇이다. 정은 그 그릇에 담긴 영혼의 물이다. 혜는 그 물에 비친 달, 곧 진리의 모습이다. 계정혜 삼학을 불자들은 생활화해야 한다. 문단속 하듯이 마음 단속도 해야 한다. 마음 단속이란 흠어지려는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마음을 거두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뚜렷해지고 뚜렷해지면 밝아져서 안과 밖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혼은 아름다워진다.

불자들은 다 알 것이다. 탐진치의 3독은 계정혜의 3학으로 극복된다는 것을. 하나만 기억하라. 욕심이 화를 부르고 화가 어리석음을 부른다. 그러니 욕심을 줄이면 화가 적어지고 화가 적어지면 어리석음이 적어진다. 간단하다. 욕심부리지 않으면 예뻐진다.

《무량수경》은 이렇게 말한다.

항상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얼굴로 대하라.

마음 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지니면 내 스스로 미워진다. 지금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다음에 가서는 그것이 큰 원수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충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서로 양갈음을 하게 된다.

《법구경》도 이렇게 말한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다.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흩어진다. 너그럽게 풀어야 한다. 미소 짓는 얼굴은 우리를 활짝 열리게 해 준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미소 짓는 얼굴을 통해 우리의 사주팔자가 바뀔 수도 있다. 미소란 그러고 보면 하나의 운명일 수도 있다. 미소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이 삶을 바꾼다. 미소는 맑은 영혼의 얼굴이고 맑은 영혼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할 일만 하고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화낼 일이 사라지고 화내지 않으면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는 영혼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아름다운 영혼은 우리 얼굴에 미소의 꽃을 피운다. 이렇고서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화장품, 계정혜로 매일매일 화장하라. 늘 미소 짓는 얼굴로 살아가라.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I

1986년, 법정 스님은 동덕미술관에서 보현행원품을 3일 동안 강론합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모두 찾아가 진리를 묻고 배우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들은 법문 내용입니다. 스님은 평생 두 사람의 동자를 사모하였는데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그리고 선재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

터 보현보살의 행행과 원願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따로 떼어 〈보현행원품〉으로 펴내 읽었습니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오늘부터는 스님이 전하는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따라갑시다.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경전을 읽지 않는다. 원인으로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 탐구력 부족. 무엇이 부처님 말씀인지, 불교가 무엇을 말하는 종교인지, 불자는 무엇을 등불 삼아 자신을 수련하고 세상을 향해 보살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이다. 궁금하지 않다기보다는 알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둘, 한문 경전. 불경이 한문으로 전해졌으니 한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경전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번역서도 많아졌다.

셋, 불립문자의 영향, 그러나 선의 세계에도 무수한 선의 기록들이 있다. 읽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 있다.

저마다 부처라고 하니까 모두들 거기서 안주한다. 진짜 부처라면, 참으로 눈뜬 사람이라면, 진실로 열린 마음이라면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어야 한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진짜 불법이다. 외국에서는 선종의 스님들도 독경을 일상적인 일과로 하고 있다. 선사들의 어록을 들춰 보면, 그분들의 경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경을 떼뺏기지 못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길잡이를 따라 길을 가는 것과 제멋대로 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경전을 읽지 않으면 저마다 자기식 불교에 갇히게 된다.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다.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했다.

먼저 교리를 믿고 그 뜻을 잘 살핀 뒤 그에 따라 실천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불교의 교리는 경

전에 있다. 부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모든 법이 잘 말해져서 준비되어 있으니 오직 법에만 기대어 자신을 수련하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한 부분이다. 보현보살의 법문을 적어놓은 것이다.

여기서 행원行願이란 행동과 소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를 이룬 것을 말한다. 행동은 소원에 뿌리를 내려 있고 소원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선재동자의 구도 행각이 지혜를 상징한 문수보살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덕행을 상징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치게 되는 것은, 불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선재동자의 선지식 구도 행각은 자신이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여러 계층의 이웃을 만나고, 눈뜨고, 거둬 이루어짐으로써 자유와 평화에 도달하는 참된 자아 실현의 여정이다.

보살행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개 보살이라는 표현을 쉽게 한다. 그러나 이름만으로, 입만 가지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행동으로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야 보살인 것이다.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보살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본래 성불이다. 날 때부터 부처다. 그래서 저마다 여래의 덕을 갖추었다. 보현보살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이루려면 10가지 크나큰 행과 원을 쌓아야 한다.”

10가지 큰 행과 원은 이렇다.

하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예경제불禮敬諸佛이다.

둘, 부처님의 덕행을 찬타한다. 칭찬여래稱讚如來다.

셋, 여러 가지를 공양한다. 광수공양廣修供養이다.

넷, 지은 허물을 참회한다. 참회업장懺悔業障이다.

다섯,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 수희공덕隨喜功德이다.

여섯, 설법하여 주기를 청한다. 청전법륜請轉法輪이다.

일곱,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 청불주세請佛住世다.

여덟, 부처님을 본받아 배운다. 상수불학常隨佛學이다.

아홉, 항상 이웃의 뜻에 따른다. 항순중생恒順衆生이다.

열, 모두 다 돌려준다. 보개회향普皆廻向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10가지 보살의 행과 원을 신해행증信解行證할 것이다. 먼저 교리를 믿고 그 뜻을 잘 살핀 뒤 그에 따라 실천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따라갈 것이다. 이제 보현보살이 말한다.

첫째 행원은 예경제불이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행과 원이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의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보현의 행과 원의 힘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한다.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겠지만,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해야 내 예배도 다하겠지만, 중생계가 그 업과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다.

염념상속念念相續 무유간단無有間斷 신어의업身語意業 무유피염無有疲厭,

생각에 생각이 맞닿아 끊이 없으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침과 싫증이 없다.

보살의 이 지극한 염원을 보라.

예배는 헌신이다. 귀의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무례한 시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집에서는 가족 사이의 예절, 공공장소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예절이 지켜지고 있는가?

예절이 사람을 만든다. 예절은 그 사람의 품위다.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대하라. 그래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다르지 않다.

절에 가면 절을 한다. 누가 절을 받는가?

부처님은 길을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게 의지하라. 自歸依法歸依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예절을 지키는 것은 일상에 닳아진 자신을 회복하는 길

이다. 방법은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절을 몇 배 채우기

위해 굴신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간절하고 공경스

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예배해야 한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8월호로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사는 것이 마뜩찮을 때,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한심해 보일 때 우리는 흔히 세상을 탓하

고 이웃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기 싫으셨던지 스님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이 글은 1980

년 8월 30일에 부산주부대학에서 있었던 법정 스님 강연을 일

부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전부다

우리가 선택한 인류의 명칭은 호모파베르가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다. 호모파베르는 공작인이라는 뜻인데 공작인

이란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질을 도구를 만들고 그걸 사

용하는 공작성과 기술성에 둔 인간관을 나타내는 말이

다. 호모사피엔스란 지성인이라는 뜻인데 동물학상 현재

의 인류를 가리키는 학술 용어다. 지성과 예지를 인간의

본질로 보는 인간 규정이다. 우리는 지성인, 또는 현명한

사람에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람으로

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

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입에 맞는 떡이 그리 흔치 않다. 일을

하면서도 싫어 싫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마지못해 살아가고 시시한 인생이 되

고 만다. 직장인에게 직장은 일상의 공간이다. 집은 잠자

는 장소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 대부분의 시간

이다. 그러므로 직장과의 인연을 깊이 살피야 할 것이다.

기왕에 일을 할 바에야 그것이 곧 내 일인 줄 알고 그 일

을 통해서 내 인생을 형성하고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

고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희망

했던 길과는 다른 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 일을 크게 이룰 수 있고 일을

통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처음부터 자동차 사업에 대성할 포부를 가

지고 자동차 공장의 직공이 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 공장

의 직공이 되어 그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자신도 예측 못 했던 세계 제일의 자

동차 생산 기업가가 된 것이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못할 때라도 그날그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를 불태

우며 자기를 형성해 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저절로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

(법정 스님 잔소리, 8월호로 이어집니다.)

5. 법정 스님 강추,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VI

자재성에서 만난 미가 장자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은 한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고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욕심을 떠난 성품을 찬탄하고 선지식을 생각하며, 삼세를 두루 비추어 큰 원을 기억하며, 중생을 널리 구제하되 유위有爲에 집착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법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자재성으로 나아갔다. 과연 그곳에 미가 장자가 있었다. 저자 한가운데 사자좌師子座에 앉아 수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운자輪字 장엄 법문을 펼치고 있었는데 선재동자가 한 걸음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해 말했다.

위대한 이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여러 세상을 유전流轉하면서도 항상 보리심을 잊지 않으며, 평등한 뜻을 얻어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으며, 청정한 마음을 얻어 깨지지 않으며, 대비력大悲力을 내어 고달프지 않으며, 다라니에 들어가 두루 청정함을 얻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지혜의 큰 광명을 내어 법에 어두움을 없애며, 걸림 없는 이해와 변재辯才의 힘을 얻어 깊은 이치를 결정하며, 바로 기억하는 힘을 얻어 온갖 차별된 법륜을 기억하며, 길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얻어 모든 길에서 법을 두루 설하며, 지혜의 힘을 얻어 모든 법에 그 이치를 결정하고 분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가는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내었는가를 묻고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했다.

착하다,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받했구나.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부처님의 씨앗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세계를 깨끗이 한다.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법

의 성품을 통달하며, 업의 종자를 깨닫고, 행이 원만하며, 큰 원을 끊지 않고, 탐욕을 떨쳐 버린 성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삼세의 차별을 분명히 보고, 믿는 지혜가 영원히 견고하다. 곧 여래께서 거두어 주시며, 부처님이 생각하시고, 보살과 평등하며, 성현이 찬탄하고, 범천의 왕이 예배 친견한다. 모든 천왕이 공양하고, 야차들이 수호하며, 나찰들이 호위하고, 용왕이 영접하며, 긴나라왕이 노래하고 찬탄하며 세상 임금들이 칭찬하고 경축한다.

또 위없는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모든 중생계를 편안케 한다. 이른바 나쁜 길을 버리게 하고, 어려운 데서 벗어나게 하고, 가난의 뿌리를 끊고, 하늘들이 쾌락하고, 선지식을 만나 가까이하고, 큰 법을 듣고 받아 지니고, 보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맑게 하고, 보살도를 비추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고, 보살의 지위에 머문다.

그대는 알아라. 보살의 하는 일이 심히 어려워 나오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우며, 보살을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믿을 데이니 놓고 기르고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중생을 건지니 온갖 고난에서 빼내기 때문이며, 중생의 의지처이니 세상을 수호하기 때문이며, 중생을 구호하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 보살은 풍륜과 같으니 세상을 유지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대지와 같으니 중생들의 선근을 길러 주기 때문이며, 큰 바다와 같으니 복덕이 충만해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은 또 밝은 해와 같으니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추기 때문이며, 수미산과 같으니 선근이 높이 솟아나기 때문이며, 밝은 달과 같으니 지혜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용맹스러운 장수와 같으니 마군을 굴복시키기 때문이며, 임금과 같으니 불법의 성인에서 자유자재하기 때문이며, 맹렬한 불과 같으니 중생들의 애착심을 태우기 때문이다. 또 큰 구름과 같으니 한량 없이 오묘한 법비를 내리기 때문이며, 때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으니 모든 믿음의 싹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며, 뱃

사공과 같으니 법 바다의 나루로 인도하기 때문이며, 다리나 같으니 생사의 흐름을 건너게 하기 때문이다.

미가가 다시 자리에 올라 선재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음妙音 다라니를 얻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천신들의 말을 분별해 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시방十方의 무수한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다만 보살의 이 묘음 다라니 광명 법문만을 알 뿐이다. 하지만 저 여러 보살 마하살은 중생의 갖가지 생각과 시설과 이름과 말에 널리 들어간다. 비밀을 말하는 법구去句와 구경究竟을 말하는 법구와 관계가 있는 삼세에서 반연할 것을 말하는 법구와 상품上品을 말하는 법구와 상상품上上品을 말하는 법구와 차별을 말하는 법구에 널리 들어간다.

모든 세간의 주술과 음성의 장엄莊嚴輪과 차별된 자륜字輪의 틈에 두루 들어가니,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다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주림住林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곳에 해탈 장자解脫長者가 산다. 그에게 가서 물어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행을 이루며

어떻게 보살행을 모으며

어떻게 보살행을 생각하는가

선재동자는 선지식으로 모든 지혜의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믿음을 깊이 심고 스스로 이익을 더하였다. 그러고는 미가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다.

이제 우리의 선지식 여행은 주림 마을을 찾아가 해탈 장자를 만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과연 어떻게 보살행을 닦고 이루며 모아 생각할 것인가.

6. 불일암 구석구석



사진 덕조

불일암 밥상

불일암 점심은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된다. 제때 먹기 위해 10시 30분부터 준비했다. 오늘 밥에는 잣이 들었다. 탄수화물과의 균형을 생각한다. 앞에 놓인 열무김치는 광주 사는 신도의 선물이다. 두부부침은 늘 믿음직하다. 소금 살짝 뿌리고 올리브 기름에 구웠다. 단백질이 필요한 불일암 밥상 터줏대감이다. 쌈장이 보인다. 된장 한 술, 고추장 삼분지일, 깨소금 기분에 따라, 매실청 조금, 그리고 참기름으로 향을 냈다. 세 번 나눠 먹는 양이다. 쌈장의 연

인 오이고추가 손길을 기다린다. 지난 3월 말에 주암 시장에서 오이, 가지, 케일, 쪽갓, 방울토마토, 비트, 치커리 모종과 함께 사다 심은 텃밭 수확물이다. 수저 옆에 떡하니 자리잡은 것은 국이다. 냄비에 물 두 컵 붓고 끓기 시작하면 미역과 표고버섯을 넣는다. 된장 반 술 풀고 보글보글할 때 콩나물 투입, 바리에 옮겨 담아 상을 차린다. 뒤쪽에 나가 꼬리풀 한 가지 데려다 병에 꽂았다. 숟가락 들기 전에 잠시 합장.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이제 바야흐로 사시 공양이 시작된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바다로 가는 길

우리 동네
바다약국을 지나
바다로 가는 길

나는
늘 푸른 바람이 되어
날아갑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기쁘고 슬픈 이야기
그들이 내게 부탁하는
수많은 기도를
혼자서는 감당 못해
바다로 들고 가
수평선에게 전하려고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순 없어
날개도 아니 달고
바람이 되어 날아갑니다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의 새 책 《진리와 자유의 길》 출간

'맑고 향기롭게'에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미발표 유고를 묶은 《진리와 자유의 길》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 동안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으시며, 수련생을 위해 불교의 핵심 내용을 집필하고 강의할 때 쓰신 친필 원고입니다. 원고 작성 이후 35년 만에 처음 출간되는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불교와 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덕조 스님은 출간 의미를 "부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신타르타는 생로병사의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진리의 길을 탐구했고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되신 뒤에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 출가한 뒤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했습니다. 스님의 무소유는 진리를 실천해 자유인으로 사는 한 방법이었고 이 책은 모든 이웃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법정 스님의 길라잡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불교 출현의 역사적 사실과 초기 불교의 특징, 보살행, 불교 교법을 친절하게 설명한 뒤 선의 역사와 사상, 좌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읽기 쉬운 책과 배우는 책이라는 두 가지 성격과 교양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정 스님이 안계신 지금, 맑고 향기롭게 회원과 길상사 신도, 나아가 불자들이 법정 스님을 그리워한다면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의 인쇄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우리 사회를 더 맑고 더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17권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된 저서는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텃 빈 충만》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인도기행》 《진리의 말씀》 《숫타니파타》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말과 침묵》 등 총 17권입니다.

저서를 읽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 홈페이지 재가입시에는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전자책을 통해 회원님 저마다 맑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 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상사를 자신의 화단처럼 가꾸고 꾸미는 일에 뜻을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5일(월)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매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책읽기 소모임 : 매주 화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7월 3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백중 아미타기도 및 백중 49재(천도재)

장소: 극락전 / 시간: 오전 9시 50분

초재	7월 11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2재	7월 18일 낙태영가를 위한 천도재
3재	7월 25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4재	8월 1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5재	8월 8일 반려동물을 위한 조축
6재	8월 15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막재	8월 22일 선망조상을 위한 천도재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영가 지웃 접수 받습니다. 중무소에서 접수 후, 영단 옆에 마련된 함에 올려 주십시오. 영가 지웃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 낙태영가를 위한 2재에는 어린이나 유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우유(유제품, 사탕 등)와 영아용 물티슈 등을 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관음재일 일시: 7월 3일(토)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초하루기도 일시: 7월 10일(토) /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7월 27일(화) /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백중 가사불사 모연 불기 2565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신축년 하안거 백중기도 기간에 승보공양의 하나인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 회향: 2021년 8월 22일 (백중기도 회향일) / 동참금: 5만원 이상 자율보시 (동참자 축원) / 문의 및 접수: 02)3672-5945 / 입금계좌: 140-003-875653 (신한은행, 길상사)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관음재일	7월 3일	오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7월 3일	오후 6시	극락전
초하루기도	7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초재	7월 1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2재	7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7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3재	7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2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일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